

법 어

부처님의 가르침이 한반도에 전래된 지 1,700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국불교의 역사는 곧 우리 민족의 역사이며 종교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이 땅의 중생들과 흥망성쇠를 함께하며 민족의 전통정서로 자리 매김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전법과 구법의 역사를 되돌아보자는 뜻 깊은 오늘, 부처님 탄생 성지 룸비니에서 채화한 평화의 불을 구법순례의 길을 따라 한반도에 이 운하고 이 자리에서 평화를 기원하는 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한 민족으로서 갈등을 치유하고 항구적인 평화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어려운 고행을 길을 택해 평화의 불을 이곳까지 이운한 도선사 혜자스님의 원력과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소통과 화합보다는 갈등과 분열의 길로 치달고 있는 최근 남북관계의 절박한 현안을 마주하면서,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이하여 ‘분단의 벽을 넘어 평화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이곳 임진각에서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원하는 것은 참으로 뜻 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원망은 원망에 의해 해결될 수 없으며, 원망을 놓음으로써만 그것은 풀린다.”고 했습니다. 한국전쟁이 60년이 지나 이제는 그 아픔을 어느 정도 치유하고 있지만 이산가족의 아픔과 전쟁의 공포는 아직도 우리 민족의 가슴에 원망과 미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신심과 정성이 가득한 불자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대립구도를 청산하고 탐욕과 분노와 무지를 씻어버리는 일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이웃에게 자비와 지혜를 베풀고, 남북간에는 소통하며, 국제간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자리를 우리 불교도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역 만리 전법의 길을 거쳐 이운해 온 평화의 불이 영원히 꺼지

지 않는 진리의 불이 되어 국민들에게 행복으로 밝혀지고, 우리는 한결 같은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존하고 상생하는 민족존엄의 등불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법회를 계기로 남북간 긴장은 완화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불자들과 함께 정성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원력으로 분단의 벽을 넘어 평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7(2013)년 5월 2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